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상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8장 영적 의욕(desire)의 시금석

『산상설교』 상권 제8장, 인쇄 105~117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5:6

> ❓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걸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7장에서 다룬 넷째 복(마태복음 5:6)을 한 번 더 붙든다. 이 복은 팔복의 열쇠이고, 우리 상태를 재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시금석은 두 방향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교리를 재는 시금석으로, 구원이 “너무 쉽다”거나 “너무 어렵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삶을 재는 시금석으로,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채워지므로 “나는 채워졌는가?”를 물어야 한다. 이어서 그는 주리고 목마름을 알아보는 표지를 든다. 거짓된 자기 의를 꿰뚫어 보는가, 의에 반대되는 것과 의욕을 무디게 하는 것을 피하는가, 성경·기도·성도의 교제로 의를 날마다 찾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의욕이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진노, 죄의 가증함,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아름다움으로 설명하며 설교를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왜 같은 본문을 다시 다루는가 — 두 가지 시금석

로이드 존스는 7장의 고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같은 본문을 이번에는 더 실제적으로 살핀다. 그가 이 복을 팔복의 열쇠 가운데 하나로 보는 이유가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으면 의를 소유할 수 없고, 약속된 배부름도 알 수 없다. 그는 이 절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잰다. 이 시금석은 교리를 시험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 두 방식으로 작동한다.

1. 이 복은 팔복의 열쇠 가운데 하나다
2. 주리지 않으면 의도, 배부름도 없다
3.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의 완벽한 진술이다
4. 교리와 삶, 두 방향의 시금석이다

> **마태복음 5:6**
> 설교 본문. 주림과 배부름의 절대적 약속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2. 교리의 시금석 — "너무 쉽다"와 "너무 어렵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로 반대한다. 흥미롭게도 같은 사람이 두 반대를 오간다. 구원이 공로 없이 거저 받는 선물이라고 하면 “구원을 너무 쉽게 만든다”고 반대한다. 그런데 그 의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너무 어려워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한다. 두 반대 모두 의를 예절 바르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수준쯤으로 여기는 데서 나온다.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의의 표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우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므로 절대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 죄의 잔재를 가진 사람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이 표준을 보는 순간 의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를 바로 본 사람은 “너무 쉽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제 손에는 없사오니 당신의 십자가만을 붙드나이다”라는 찬송 구절이 그들의 고백이다. 그래서 두 반대 가운데 어느 쪽을 품든,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셈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 데 감사하는 사람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 두 면을 언제나 함께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같은 사람이 두 반대를 오간다

3. 의의 표준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4. 불가능하니 거저 받을 수밖에 없다
5. 요구의 불가능성과 선물의 은혜를 함께 붙든다

> **요한일서 1:5**
>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 하나님. 요구되는 의가 절대적임을 보여 준다
>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 **마태복음 5:6**
> 할 수 없는 자가 주리고 목마를 때 채워진다는 약속
>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 3. 삶의 시금석 — 나는 채워졌는가?

이 약속은 조건이 붙지 않는 절대적 진술이다.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채워짐을 세 겹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즉각적 채움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고, 그 의가 자기에게 전가되어 죄가 용서되었음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이상 용서받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둘째는 성화의 채움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리스도가 그의 거룩함이 되셨기에 그는 자기 성화에 절망하지 않는다. 셋째는 궁극적 완성이다. 점이나 주름이 없는 상태,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 그러면 질문이 남는다. 나는 이것을 누리는가?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가? 아직도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고 헛되이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원인은 하나다. 참으로 주리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약속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1. 약속은 조건 없는 절대적 진술이다
2. 칭의: 전가된 의, 하나님과의 화평

4. 완성: 흠 없는 영화의 날을 기다린다
5. 못 누린다면 주리지 않은 것이다

로마서 5:1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누리는 화평, 곧 즉각적 채움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 성화에 절망하지 않는 근거

>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성령의 내적 활동

>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베소서 5:27

점이나 주름이 없는 최종 완성

>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22~23

채워진 삶을 점검하는 성령의 열매 목록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4

>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4. 첫째 표지 — 내 거짓된 의를 꿰뚫어 보는가

그렇다면 내가 주리고 목마른지는 어떻게 아는가? 로이드 존스는 먼저 성경을 연구하라고 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주리고 목말라서 채워진 사람들이 줄지어 나온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전기로 성경의 기록을 보충하라고 권한다. 그가 드는 이름은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터, 칼빈, 존 낙스, 청교도들, 파스칼, 요한 웨슬리의 일기, 조지 휫필드, 매들리의 존 플레처다. 첫 번째 표지는 자기 의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이력을 다 늘어놓은 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 안의 무엇이나 내가 해낸 일로 자기만족을 느끼는 한, 나는 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다. 스스로 등을 두드리거나 걸핏하면 자기를 변호하는 것도 아직 자기 의에 매달려 있다는 증거다. 존 다아비의 표현처럼 주리고 목마름은 “굶어 죽어 가는 것”이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죽어 간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다. 그래서 이 단계는 철저한 무능을 인정하고, 누군가 와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간다.

1. 성경과 성도의 전기로 기준을 세운다
2. 자기 의를 쓰레기로 보는 것이 첫 표지다
3. 자기만족과 자기변호는 자기 의의 증거다
4. 주림은 '굶어 죽어 가는' 자각이다
5.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깊은 인식이다

> **빌립보서 3:8**
> 바울이 자기 이력을 배설물로 여김. 첫째 시금석의 본보기
>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 5. 의인처럼 죽고 싶다면 의인처럼 살라 — 반대되는 것을 피함

우리는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들처럼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들이 누린 복만 원하기 쉽다. 고전적인 예가 거짓 선지자 발람이다. 그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지만 의인처럼 살기는 원하지 않았다. 로이드 존스는 두 가지가 늘 붙어 다닌다고 말한다.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보여 주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표지는 의에 반대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얻거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다. 그러나 시궁창 같은 삶을 그만둘 수는 있다. 먼저 분명히 악하고 해로운 것은 전염병 환자가 있는 집을 피하듯 피해야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고 정당한 것이라도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다가 하나님의 일을 덜 원하게 된다면 피해야 한다. 식사 전에 간식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영적 의욕은 그만큼 민감하다.

1. 복은 원하고 삶은 원하지 않는 발람형 신앙
2. 의인처럼 죽기와 살기는 한 묶음이다
3. 진짜 원함은 증거로 드러난다
4. 악한 것은 전염병처럼 피한다
5. 무해해도 식욕을 죽이면 '간식'이다

> **민수기 23:10**
> 의인의 죽음을 원한 발람. 복만 원하고 삶은 원하지 않는 태도의 전형
>
>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면 동시에 의인처럼 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 6. 셋째 표지 — 의를 날마다 찾고 기회를 붙드는가

셋째 표지는 의를 열심히 상기하는 것이다. 의가 늘 눈앞에 있도록 생활을 훈련해야 한다. “너무 바쁘다”는 말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답한다. 정말 주리고 목마르다면 시간을 내게 될 것이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원하는 일에는 신기하게도 시간을 낸다. 의를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얻을 기회는 붙들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바디매오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목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렇게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에 부지런히 가고, 의를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교회에 되는대로 출석하는 사람은 주림을 모르는 것이다. 신문, 소설, 영화, 라디오, TV에 쓰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한다. 성도들은 매일 네다섯 시간씩 기도했고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전기와 책을 읽는다. 참으로 원하는 사람은 귀찮게 조르는 과부, 천사와 씨름한 야곱, 금식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한 채 계속 매달린 루터와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 본 뒤에야 여전히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의를 선물로 받는다.

1. 원하면 시간을 낸다는 우선순위 문제다
2. 바디매오처럼 은혜의 길목에 선다
3. 성도의 모임, 성경, 기도, 전기 읽기
4. 조르는 과부와 씨름하는 야곱처럼 매달린다
5. 다 해 본 끝에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 **마가복음 10:46~52**
>
> 스스로 못 고치지만 길목에 선 바디매오. 기회를 붙드는 주림
>
> 46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

누가복음 18:1~8

끈질기게 조르는 과부. 얻기까지 매달리는 태도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

창세기 32:24~30

천사와 씨름한 야곱. 혼신을 다해 구하는 모습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

“만일 여러분이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내게 될 것입니다.”

📜 7. 왜 이것이 가장 큰 의욕이어야 하는가

로이드 존스는 먼저 묻는다.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자아를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가장 큰 소원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모든 사람의 최고 의욕이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절대 절망에 이른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서 영원을 보내게 하는 것은 이 의뿐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사람들의 최고 욕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다. 둘째, 죄는 절대적으로 가증하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바로 본다면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된다. 셋째,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른 사람들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안다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바라게 된다. 설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약속과 본문을 다시 들려주며 끝난다.

1. 의가 없으면 진노 아래, 파멸에 직면한다
2. 의는 이생과 내생의 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3. 죄를 하나님처럼 미워하는 것이 주림이다
4.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사람다운 삶이다
5.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

> **요한복음 3:36**
>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의가 없는 자의 상태
>
>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삶의 내용
>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려는 바울의 소원. 주림의 최고 표현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태복음 7:7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오해와 반론

📖 용어

시금석
금의 진위를 가리던 돌처럼, 진짜 신앙인지 가려내는 기준이다.

의
이 설교에서는 도덕적 괜찮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완전한 상태, 곧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
내게 의가 전혀 없어 굶어 죽어 간다는 자각과, 그 의를 간절히 찾는 갈망이다.

전가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화

마지막 날 몸까지 영화롭게 되어 점이나 흠 없이 완성되는 상태다.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사람이 놓인 자리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마태복음 5:6은 교리와 삶을 동시에 재는 시금석이다.
- 구원이 너무 쉽다거나 너무 어렵다는 반대는 모두 의의 표준을 모르는 데서 나온다. 의는 불가능하기에 선물로 받는다.
-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채워진다. 칭의의 화평, 성화의 능력, 완성의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면 주림을 점검해야 한다.
- 주림은 자기 의를 버리고, 의에 반대되는 것과 의욕을 무디게 하는 것을 피하고, 성경·기도·성도의 교제로 의를 끈질기게 찾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 의가 없으면 진노 아래 있고, 의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고귀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욕이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